

'원이삼점' 우주·삼위일체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래인사-성프란체스코성당 외벽화



◇해인사 법당. 용마루 밑의 삼각부분에 '원이삼점'이 그려져 있다. '원이삼점'의 큰 원은 우주법계를, 작은 세 개의 원은 각각 법신, 해탈, 반야를 의미한다.

절이나 성당은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림으로 장엄한다. 사찰의 벽화로는 부처님일대기, 정생도, 심우도, 설화 등이 그려져 있으며 성당과 교회에도 성인, 천사 등을 주 소재로 한 벽화를 그린다.

사진 왼쪽은 해인사이고 오른쪽은 이탈리아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모습이다. 벽화로 장엄된 건물 양쪽 다 삼각지붕 아랫부분에 동그란 큰 원(圓)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이 있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불교진리의 본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이삼점(圓伊三點)'으로 큰 원은 우주법계를, 작은 세 개의 원은 각각 법신, 해탈, 반야를 의미한다. 성당의 원 역시 우주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체를 상징하고 있다.



◇성 프란체스코 성당(1290년). 삼각지붕 부분의 큰 원은 우주를, 가운데 세 개의 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체를 상징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일부 공신도에 의해 우리민족의 귀중한 성보들이 불에 타고 파손되는 등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민행은 상대방의 종교는 물론 자기 종교의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소행이다.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영향력이 큰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화합하고 모범을 보여 이 사회를 정법과 진리로써 바르게 이끌어야 함은 종교의 몫이기 때문

"東西 하나" 깨닫는 성화감상

프롤로그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이나마 소개하는 불교와 기독교의 성화를 비교감상하며 그 공통점을

살피보는 일은 상대방 종교를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둠이 진할수록 빛은 더욱 밝듯이 이 세상이 혼란할수록 부처님과 예수님같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더욱 간절해진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화하고 조형화시킨 인류의 성보, 불화와 성화를 통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진리는 하나이며 이 지구촌의 부리 역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일조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다. 종교화(聖畵)는 종교심을 최대로 고양시켜 빼어난 조형작품으로 표출한, 종교예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불화와 기독교의 사상을 묘사한 서양의 유명 성화중 공통점을

조용필 "해외공연 외화 벌겠어요"

범띠 인기인 새해포부

무인년을 맞아 범띠 불자 스타들이 방송가를 휘어잡으며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텔런트 유하영(24) 이주희(24) 송나영(24) 등을 비롯해 김세진(24·배구) 채지훈(24·쇼트트랙) 선수, 텔런트 김침(36), 개그맨 최양락(36), 가수

김병조 대학서 '명심보감' 강의

유하영 "컴맹탈출·IMF 극복 동참"

채지훈 "나가는 오륜 금메달 기대"

조용필(48) 최백호(48), 개그맨 김병조(48), MC 임성훈(48), 국악인 김성녀(48), 텔런트 남일우(60) 박규재(60)씨 등이 모두 범띠.

미스코리아 출신 텔런트 유하영씨는 연기도 연기지만 MC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불교TV의 '불교백과' 그건 이렇습니다"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교육방송의 '인터뷰 정보사냥'을 맡아 컴맹 탈피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적인 희망보다는

경제위기 등을 이겨내기 위해 공인으로서 불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 해 소망을 피력한다. 호랑이를 품을 구어 새해가 더욱 기대된다는 텔런트 이주희씨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일일드라마 '방울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보다 폭넓은 배역을 소화해 연기의 감칠맛을 체득하고 싶다"고 밝힌다. 나가는 등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의 채지훈선수도 "반드시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겠다"는 굳은 결의를 안고 일본으로 떠났다.

배우머리 김병조씨는 조선대 사회교육원에서 후학들에게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돼 범띠해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다. 노래인생 30년을 결산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가수 조용필씨는 1월 2장의 베스트 앨범을 시작으로 총 6장의 결산앨범을 낼 것이고 동시에 5월에는 17집 앨범도 출시할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외순회 공연도 자주 가져 외화벌이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일본 및 미국 순회공연 계획도 밝히기도. "올해를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펴는 이들 범띠 스타들에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연>



◇조용필



◇김병조



◇이주희



◇김성녀



◇송나영



◇유하영

신행수기 당선작

<대상>

자등명 범등명②

친

저들이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동안 나는 미용실에서 하루종일 일을 했다. 서툰 미용실력에 어느새 자신감이 붙어 일이 훨씬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었다. 여제가 걸려 험위 버티고 서 있을수조차 없었지만 미용실 서터 문을 내리고 나면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와 밤을 새 아이들을 등교시켰다.

미용실, 병원,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발바닥과 입이 부르텼다. 그러면 그럴수록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가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눈물, 참회의 눈물, 부처님 품에 피울 아간 환희심의 눈물이었다.

남편은 퇴원한 후 택시회사에 다시 입사했다. 덕분에 나는 미용실 운영과 가정 살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생활은 차츰 호전되어 갔다.

너무 무리하게 버텼던 탓일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숨이 차고 눈두덩이 부었다. 갑자기 침침해진 시력은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30분이 멀다 하고 화장실을 가야 했다.

중합병으로 가보라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삶의 행복을 맛볼 줄나에 정헌벽력의 절박이 되어 다가왔고,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무엇 보다 사춘기에 접어든 남편이 걱정되었다.

나 대신 미용실을 운영해 줄 미용사를 들인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며 한가닥 희망을 갖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녔다. 병원에서 내린 선고는 갑상선 합병증, 시력이 더욱 나빠져 한달에 몇번씩 안경을 바꿨고, 몸 구석구석이 으스스리듯 아팠다.

몸이 아프자 신앙이 깊고 다 귀찮았다. 나는 무력한 무종교인으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선택했다. 다시 숨을 입에 뱉다. 병든 몸과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형제·친지들과의 다름, 이웃과의 다름,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자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시달려야 합니까? 아직 죽을 순 없습니까?"

목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현실을 거부하려는 강한 반항심이 내 모습을 흉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아들 딸의 얼굴을 대할 면목은 더욱 없어져 갔다. 사춘기인 남편에게 그저 "너무나 아파서,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숨을 마신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나날갈까봐 "엄마와 너희 자신을 위해 절에 가

기도해 달라"고 매달렸다. 그 와중에 텔레비전을 통해 사후 시신기증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한결기 희망을 남기고 삶을 송고하게 마감한 어떤 이의 감동적인 미담이었다.

언제 쓰러져 한중의 먼지로 변할 지 모르는 내 몸중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공덕이려니 생각하고 사후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그 증서는 흐트러진 나를 바로 잡는 재물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가 뇌사 상태가 되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의학 연구에 장기와 시신을 기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을 마감하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다. 유언을 하고나니 비로소 나 자신과 남편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슬픔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격 태어난 저 남편에게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자'는 마음이 생겼다. 엄마로서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숨을 끊지 않을 수 없었다. 숨을 입에 대지 않아 원망심이 차츰 사라졌다. 병의 고통까지 가슴에 안아 버렸다.

그러자 근래에 느낄 수 없었던 너그러움이 일었다. 신기하게도 힘들게만 느껴지던 호흡이 훨씬 수월해졌고 시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안경도 벗게 되었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이 맑아졌다.

문득 부처님이 남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느꼈다. 다시 하루도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개인 택시를 매입해 운행하게 되었고, 불교방송을 들으며 정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절에 다니는 나를 말린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종교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던 남편이었던가. 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작은 보시를 하며 보시행의 공덕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동참을 시켰다. 온 가족이 불교방송과 불교TV를 시청하고 시청하면서 나날이 달라져 갔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장 살림을 꾸리느라 업무도 못 냈던 불교공부가 어찌나 재미있던지는 필름 같고 96년 9월에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동국불교TV아카데미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했다.

생활이 예전보다 더욱 바빠지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저절로 미소가 나왔고, 삶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태순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그림·이준석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영우 소각로 특징

- ◆ 세라믹 필터 장착!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영 sal사 측정 - 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특 125893호
-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 상시 A/S반 대기
-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
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싸입니다.

매립지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때문에 한계에 봉착
이제는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사찰 쓰레기 고민을 매연없이 완전 해결



대표모델 : 시간당 소각능력 50Kg

소각대상물

- 폐지, 폐목, 폐성류, 폐합성수지(PE, PPI,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 등)
- ※ 수분 30% 이상의 젖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초기에 연기가 비출수 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 관광사찰,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 등



소각로 제조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1

TEL. (0344)64-7236, 62-3488, 62-2470 FAX. 62-7012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2

TEL. (0344)62-9351